

광주 주택재개발 사업 수도권 업체가 '독식'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조례 시급

최근 광주지역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몇몇 국내 유력 건설사가 대부분의 시공권을 장악하는 등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의 경우 도급순위 및 부채비율, 시공실적 등 조합측의 까다로운 선정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광주시의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19일 광주시와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주택재개발 31곳, 주택재건축 19곳, 주거환경개선사업 66곳 등 총 140여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들 구역의 시공권이 대부분 국내 유력 건설사들로 넘어가면서 분양수익금 등 막대한 개발자금이 고

스란히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이후 광주 건설업체인 K건설과 D건설이 각각 2곳에서 재개발 시행사로 선정됐을뿐 H건설, G건설, D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나머지 6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싹쓸이'했다.

이처럼 지역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사업조합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과 도급순위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동구 S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사 참여 자격을 '2005년 국내 도급순위 6위 이내'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자격 논란'을 빚었다. 광주업체 가운데 K건설이 9위에 올라있을뿐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30위권 이하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건설설업체)들의 황포도 지방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체들의 비리 유형으로는 시공권 확보를 매개로 한 건설사와의 결탁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재 광주의 경우 M사, H사, D사 등 지역 및 수도권 소재 10여개 정비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특정 건설사와의 결탁 의혹을 사다가 하면 철거업, 설계사무소 등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업체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4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본격 뛰어들었다. 특히 이 조례에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5%범위에서 응찰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佛 끈' 태극전사... 16강 향해 '불끈'



19일 오전 독일 라이프치히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2차전 프랑스와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천금같은 동점골을 성공시킨 박지성이 환호하고 있다. /라이프치히=로이터 연합뉴스

박지성 천금골... 프랑스와 극적 무승부 스위스 꺾으면 조 1위 "8강도 보인다"

▶ 관련기사 2·4·5·7·8·20·22·23면



오전 독일 라이프치히 젠트랄 슈타디온에서 펼쳐진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G조 최강팀으로 꼽히던 프랑스와 극적으로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의 5부 능선을 넘었다.

'무조건 올인하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9일(한국시간)에 따라 아드보카트호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스위스(24일 오전 4시)전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결정된다.

토고와 스위스 등 경기결과에 따라 역학관계가 있지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난 2002년 한

일월드컵 때처럼 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유럽의 벽을 뚫고 16강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게 국내 축구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날 힘겨운 무승부를 펼친 태극전사들은 막강 전력의 프랑스에 지지 않았다는 결과에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스위스를 잡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드보카트 감독은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스위스전까지 주어진 4일의 훈련기간에 '스위스 필승 전략'을 구상해야만 한다.

이번 독일 월드컵을 통해 역대 태극전사 월드컵 최다골을 터트린 '승

오늘밤의 월드컵			
<20일>			
	에콰도르 A		독일
	벨기에/23:00/KBS2-MBC-KBC		폴란드
	코스타리카 A		스위스
	홍도/23:00/KBS2		
<21일>			
	스웨덴 B		잉글랜드
	포르투갈/00:00/KBS2-MBC-KBC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라과이 B		프랑스
	아이티/00:00/KBS1-MBC-KBC		
스코어 보드			
브라질	(2승) 2 H 0 (1승1패)	호주	
한국	(1승1무) 1 G 1 (2무)	프랑스	

부사' 안정환(위스부르크)의 뛰어난 컨디션과 골 감각이 살아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황금발'로 떠오른 이천수(울산)의 킥력이 또 한번 스위스전에서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축구팬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혈값 매각"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을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

하게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혈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

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외환카드 문제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매각 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후원대학 장학50년 역사기념
남부대학교
 http://www.chunbuk.ac.kr
 ▶ 생원로 101 (062-970-1114) ▶ T.062-970-5000-3

새로운 담겨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 진남로 101 (062-953) ▶ T.061-360-5000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라지축제(유치부) 공모
내일 접수 마감
 ▶ http://www.kwangju.co.kr ▶ 문의 : (062)220-0541

내일의 CEO

내일의 지도자

내일의 박사

Be-Happy, 삐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삐콤씨

▶ http://www.kwangju.co.kr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폐공씨! 하루 2알 삐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 http://www.kwangju.co.kr ▶ 문의 : (062)220-0541